

## 야쿠리지 절

야쿠리지 절은 829년에 승려 구카이(774~835)가 창건했다고 하는 진언종(眞言宗) 사원입니다. 구카이와 인연이 있는 88사원을 순례하는 '시코쿠 순례'의 85번째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고켄잔 산의 거의 중턱에 위치하며, 도보 또는 무레초에서 흥백의 야쿠리 케이블라인 케이블카로 갈 수 있습니다.

고켄잔 산은 수 세기에 걸쳐 종교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며, 이는 야쿠리지 절 건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. 본당과 구카이를 모신 건물인 다이시도(大師堂) 외에도 가가와현의 전설적인 삼대 덴구(얼굴이 붉고 코가 높고神通력을 가졌으며 깊은 산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괴물) 가운데 한 사람을 모신 건물인 주조보도(中將坊堂)가 있습니다.

절 이름은 구카이가 경내에 묻은 여덟 개의 군밤에서 유래했습니다. 구카이가 더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구하여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점을 치려고 심은 여덟 개의 밤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된 데서 '야쿠리'(여덟 개의 밤이라는 뜻)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고켄잔 산을 '야쿠리 산'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